

대통령기록관 전시·교육 프로그램 사례연구 및 운영방안

● 이 숙 경 (Lee Sook Kyoung) ¹⁾

목 차

- I. 머리말
- II. 각국의 대통령기록관 현황과 전
시·교육 프로그램 운영사례
 - 1. 대통령기록관 운영현황
 - 1) 미국
 - 2) 러시아
 - 3) 영국
 - 2. 대통령기록관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사례
 - 1) 전시 프로그램
 - 2) 교육 프로그램
 - 3) 전시안내
- III. 한국의 대통령기록관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 1. 전시 프로그램
 - 1) 전시주제
 - 2) 전시기법
 - 2. 교육 프로그램
 - 1) 학교교육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 2) 참여형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 IV. 맺음말



A plan for managing exhibition & education programs in presidential archives

I. 머리말

진보적 계몽주의자 테오필 토레(Theophile Thoré)는 박물관의 가치 있는 물건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전통적인 기능에 대해 ‘예술품의 공동묘지’라고 비판했다.²⁾ 이러한 비판은 기록관에도 해당할 것이다.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용에 있다. 지금까지 기록관의 기록물은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열람 정도로 활용이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문화의 시대라 불리는 21세기에 필요에 따른 이용이라는 수동적인 개념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기록관을 찾기 전에, 먼저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이용자에게 매력적인 장소라는 인식을 심는 것이 오늘날 기록관이 갖추어야 할 모습이다.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장인 알렌 바인슈타인(Allen Weinstein)은 “국립기록관리청(NARA) 교육 프로그램은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취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이 국립기록관리청의 핵심활동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밝힘으로써 기록관에서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³⁾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국내외를 대표하며, 국가의 주요정책 전반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통령기록물은 행정적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사의 파행적 전개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이 파기되거나 유실되거나 개인소장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⁴⁾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2006년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기록관 설립이 의무화되었으며, 2007년 4월 27일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되면 법령에 밝혔듯이,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수행에 따라 기록물이 생산시점부

터 철저하게 관리됨으로써 국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단순히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장소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앞서 밝힌 기록관의 근본목적과 같이 대통령기록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이 가지는 성격이나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주는 위상을 생각할 때, 단순한 기록관의 의미를 넘어선다.

대통령기록관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생생한 체험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을 그저 서고 깊숙한 곳에 안전하게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공간으로, 사회교육과 역사교육의 차원에서 대중의 문화적·지적 욕구를 만족시키며,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의 마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통령기록관을 ‘민주주의의 교실(classrooms of democracy)’⁵⁾이라고 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표현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1) 경북대 기록학과 석사

2) 최태만. 1993. “현대사회와 미술관의 사회적 기능”. 『미술세계』 통권 102호, p56.

3) Allen Weinstein. 2006. “Pursuing Civic Literacy : NARA Education Programs Promote New Ways to Teach History”. Prologue. 38(3).
<http://www.archives.gov/publications/prologue/2006/fall/archivist.html>

4) 한겨레신문이 취재한 한 기록연구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퇴임 때 트럭 몇 대 분량의 기록을 사저로 가져간 것으로 보도된 바 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직전 상당한 분량의 기록을 소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2006, 10, 26)

5) <http://www.archives.gov/presidential-libraries/programs/education.html>

대통령기록관이 대중과 호응하며, 체험과 학습, 교육과 즐거움이 있는 마당이 되려면,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을 활용하여 각계각층의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간접적인 경험축적을 통한 자아발견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대통령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는 각국의 대통령기록관 설립현황과 전시·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고, 설립예정인 한국의 대통령기록관이 변화된 기록 패러다임에 따라 이용자들을 위해 마련할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II. 각국의 대통령기록관 현황과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사례

1. 대통령기록관 운영현황

1) 미국

미국이 194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시스템이다. 대통령기록물을 일반 정부기록물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통령마다 독자적인 기록관을 운영하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기록물이 본격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부터였다. 20세기 이전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⁶⁾

대통령기록물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Franklin Roosevelt) 대통령으로, 그는 현직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만들었다. 1950년 해리 트루먼 (Harry Truman) 대통령 역시 자신의 기록관을 건립하였고, 의회의 입법 활동을 도와 1955년 의회는 「대통령기록

관법」(Public Law 373, 통칭 Presidential Library Act)을 통과시켰다. 그 후 대통령들은 임기 후나 사후에 자신의 기록물을 국가에 기증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에 관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하여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게 한다는 취지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추모와 기념사업의 성격이 더 강했다.⁷⁾ 1955년 「대통령기록관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예산이 지원되고 대통령과 관련된 역사기록이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세워진 9개의 대통령기록관은 모두 이 법에 따라 건립되었다. 그러던 중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1974년 「대통령 녹취자료 보존법(Presidential Recordings and Materials Preservation Act)⁸⁾」이 제정되었다. 이것이 결국 1978년 「대통령기록물법(Presidential Records Act)」으로 이어졌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기록물은 미국 시민들의 것”이라는 당시로서는 놀라운 개념을 이끌어냈다.⁹⁾

- 6) 일례로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 (Grover Cleveland)는 국회청문회에서 “자신의 공적기록물이든 사적기록물이든 모두 자신의 것이니 그것을 관리하든 폐기하든 자신의 마음대로”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대통령이 이와 같이 자신의 기록물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버리거나 불태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증품으로 주는 일도 있었고, 또는 특별한 관리 없이 방치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 외에 미국 대통령기록물 부실관리에 대한 더 많은 사례는 Frank L. Schick, Renee Schick, Mark Carroll, 1989. “Records of the Presidency : Presidential Papers and Libraries from Washington to Reagan”, ORYX Press, 를 참고하라.
- 7) 정용욱, 1999. 「미국 국립문서기록청의 한국근현대사 관련자료 소장 현황과 이용 실태 조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9.
- 8) 이상민은 이 법을 「대통령녹취기록물 및 대통령기록물보존법」, 홍원기는 「대통령녹취기록물 및 자료보존법」이라고 번역하였으나,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대통령 녹취자료 보존법」이라 번역한다.
- 9) Nancy Cricco and Peter Wosh, 2002. “The Past, Present, and Uncertain Future of Presidential Records”, paper presented at symposium held at New York University, p91.

대통령기록관은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줄곧 민간기금으로 건립되어 일단 완성되면 관리를 국립기록관리청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986년 <대통령기록관법> 개정을 통해 정부지원과 시설규모를 제한하고, 민간의 기부를 받아 그것으로 기록관 유지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개 대통령의 고향에 건립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으며, 요즘 들어서는 대통령기록관을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 내부에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통령기록관으로는 존슨, 부시, 클린턴 기록관이 있다. 한편 Baylor University,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Dallas 등의 대학들이 현 부시 대통령기록관 유치를 희망하여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대학과 대통령기록관이 연계되는 것은 대통령기록관이 가지는 교육·학술적 기능의 표출이기도 하다.

2) 러시아

러시아의 기록관리 업무는 현용기록 관리와 비현용기록 관리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현용기록물 관리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문서정보 관리국 (Упр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и документацио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에서 수행한다. 그 후 사무 처리가 종결된 문서는 기록фон드를 구성하여 보존하고 인가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문서를 보호한 후, 영구보존을 위하여 러시아연방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⁰⁾

대통령기록관은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대통령의 예전 기록물을 포함하여 러시아 연방 대통령과 대통령 행정부 문서의 보존과 이용을 목적으로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단일 기록관으로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스탈린 거리에 있었으나 이후 1993년 스타라야 광장(Старая площадь)의 크레믈린으로 이전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은 일

명 ‘크레믈린 대통령기록관’으로 불리기도 한다. 1990년 7월 이전까지 이 기록관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총무부(общий отдел) 기록관 소속이었으나 1991년 12월에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대통령 행정부의 총무부 기록관이 되었다.

1919년에서 1990년까지의 공산당 최고기관인 중앙위원회의 정치국(Политбюро)과 상무위원회(Президиу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표자회의(Конференция), 총회(Пленум) 등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고, 1998년에 기록관은 대통령 정보행정 및 문서책임 부서로 재조직되었다.¹¹⁾ 대통령기록관에는 다음 네 가지 범주의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다.

첫째,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Российская Советская Федеративна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РСФСР)과 러시아연방(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тивная РФ) 대통령으로서 B. 엘친(Ельцин)의 재임과 정에서 생산된 문서와 대통령 행정부의 정치조직 하위부서에서 생산된 기록물.

10) Положение о Канцеляри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313 (러시아연방 대통령비서실에 관한 규정) 313호, 1999년 4월 9일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으로 승인됨.

11) Архивы России. 1997. Москва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М, АРХЕОГРАФИЧЕСКИЙ ЦЕНТР. pp219~221.

둘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구소련 :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대통령이었던 М. 고르바초프(Горбачёв)의 공적인 임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과 행정부의 정치조직 하위부서에서 생산된 기록물.

셋째, (1952년에서 1986년까지 당 대회, 1944년에서 1990년까지 중앙위원회 총회를 포함하여) 1919년에서 1991년까지 전(全) 연방 공산당(볼셰비키)과 소련 공산당 (ВКП(б)-КПСС)¹²⁾ 최고기관 기록물과 1919년에서 1990년까지 중앙위원회 정치국 기록물, 중앙위원회 서기국 (секретариат) 및 상무위원회 기록물.

넷째, И. 스탈린 (Сталин), Н. 흐루쇼프 (Хрущёв), Л. 브레즈네프 (Брежнев), Ю. 안드로포프 (Андропов), К. 체르넨코 (Черненко) 등 국가 최고지도자와 공산당 지도자 약 40여 명의 개인 기록폰드.¹³⁾

대통령기록관의 주요 검색도구는 각종 컬렉션에 대한 아이템 수준의 인벤토리가 있으며, KGB와 외무부 장관의 파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공개된 다른 기록관의 파일과 더불어 대통령기록관 파일에서 기밀 해제된 3,615건의 문서에 대해 검색이 가능하다.¹⁴⁾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기록관 전체는 여전히 최고기밀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연구자들에게는 접근이 쉽게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선택된 매우 제한적인 연구자에게만 역사 기록물의 일부 원본문서에 대해서 접근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밀해제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특별명령에 의해서만 조정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에서 열람이나 원본 문서의 복사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행정부 장관의 허가에 달려있으며, 장관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하다. 온라인상에서 러시아 대통령기록관의 홈페이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의 보존과 제한적 열람만을 제공할 뿐 기록관의 대외

적 이용을 위한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 등의 공공 프로그램 운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영국

영국 국가기록원이 수집하는 공공기록물의 범위는 민간기록물과 지방정부 기록물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기록물이다. 수집대상 기관은 정부부처와 책임운영기관의 기록물,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정 재판문서, 그리고 1959년 이전 국가기록원이 보관했던 문서들이다.¹⁵⁾ 따라서 내각의 장인 총리의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서 다른 공공기록물과 같은 규정으로 관리되는데, 현재 역대 총리기록(6명, 1974~2000)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총리기록물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나 기록관은 없다. 다만 처칠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기록관을 설립하여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공공기록물을 제외한 개인기록물을 관리·보존하고 있다.

처칠기록관은 1973년 윈스턴 처칠의 기록물을 보존할 목적으로 국가가 아닌 민간에 의해 세워졌으며, 그 자체가 처칠에 대한 국가적 기념물인 처칠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다. 1969년 처칠의 부인인 스펜서 처칠이 처칠의 개인기록물을 대학에 기증하면서 처칠기록관의 초석이 다져졌다.

12) Все союзная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большевики]-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13) Архивы России. 1997. Москва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М. АРХЕОГРАФИЧЕСКИЙ ЦЕНТР. p220.

14) http://www.iisg.nl/~abb/abb_c1.html

15)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2005. 「주요 외국의 기록관리 현황」.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 pp113~114.

16) The Churchill Archives Centre Annual Report July 2005 – June 2006. p1.
http://www.chu.cam.ac.uk/archives/about/Annual_report_06_highlights.pdf

처칠기록물로는 유년시절 편지에서부터 대공황시대의 연설문,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에 이르기까지 약 3000여 상자의 편지와 문서로 이루어지며, 매우 귀중한 가치가 있는 기록물들로 평가되고 있다.

처칠기록물은 처칠의 개인적 활동이나 개인적 관심사뿐 아니라 공적인 삶의 분야를 망라하여 처칠 시대와 그 이후 시대에 있어 보다 폭넓은 기록물 관리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오늘날 처칠기록관은 처칠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약 600여명에 이르는 영국 주요 인사들의 문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외교, 과학 관련 문서들이 풍부하게 소장되어 있다.

최근 들어 처칠기록관의 가장 중요한 수집물로는 대처(Margaret Thatcher) 전 총리의 개인기록물과 정치기록물 컬렉션을 들 수 있다. 대처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공적·사적 행사에 대한 수만 여점의 사진과 언론보도자료, 오디오·비디오테이프 등 20세기 후반 영국 정치사의 가장 중요하고도 방대한 기록물을 대처는 처칠기록관에 기증했다. 처칠기록관은 순수 민간차원에서 건립되었으며, 운영비용을 전적으로 기록관의 수익과 후원으로 유지한다¹⁶⁾는 점에서 미국의 대통령기록관과 차이가 있으며, 국고지원과 관련하여 법적분쟁까지 벌이고 있는 박정희 기념관을 비롯하여 현 노무현 대통령까지 기념관 건립을 논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처칠기록관은 저명한 인사의 개인기록물이나 사건관련 기록물, 또는 국립기록관리청으로 자동 이관되지 않는 기록물들을 수집한다. 처칠기록관은 현재 있는 컬렉션을 보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첫째, 스펜서-처칠 가족

둘째, 1900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치적 삶과 정부정책

셋째, 1900년부터 현재까지의 군사전략과 외교정책

넷째, 1900년부터 현재까지의 과학과 기술

다섯째, 처칠대학 역사 및 처칠대학과 관련된 유명인사의 개인기록물

처칠기록관은 이러한 컬렉션들을 바탕으로 열람제공은 물론 전시와 교육 및 학술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1994년의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몰려들어 명실공히 처칠연구센터로서 기록관의 명성을 높이게 되었다.

2. 대통령기록관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사례

1) 전시 프로그램

전시는 기록관의 특성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기록관의 가장 대표적인 운영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시는 전시기간에 따라 상설전시와 특별전시, 전시장소에 따라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전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상설전시는 비교적 장기간 고정된 장소에서 전시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일반관람객에게 공개하는 전시로, 대통령기록관의 핵심적 구성단위이며 대통령기록관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기록관들의 경우, 상설전시는 대통령의 생애와 주요업적, 정책 및 대통령 재임 당시의 시대상 등을 위주로 전시하고 있다. 후버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상설전시는 후버대통령의 생애를 전시로 꾸민 ‘모험의 날들(Years of Adventure)’을 비롯하여 후버대통령이 재임했던 1900년대 초반의 시대상을 위주로 한 ‘포효하는 20세기(The Roaring Twenties)’,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등 주제에 따라 9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전시되고 있다. 포드 대통령기록관은 비디오, 홀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관람자가 그 시대 역사의 ‘참여자’가 되어보도록 하는 독특한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 ‘대통령회의실(Ford Cabinet Room)’의 경우 백악관 회의실을 그대로 재

현해 놓았으며, 관람자들이 직접 회의실 탁자에 앉아 대통령과 보좌진들의 회의내용을 비디오로 시청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관람자들이 대통령의 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느낌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워터게이트 파일(the Watergate files)'은 대통령의 공적이나 업적만을 전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과오도 전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하다.

1972년 7월 17일 이후 "워터게이트"란 단어는 더 이상 워싱턴에 있는 호텔 이름이 될 수 없었다. 그 날부터 그것은 정치적 부패행위의 대명사가 되었다. <중략>

워터게이트 파일(the Watergate files) 전시의 머리말 중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닉슨 대통령자료(Nixon Presidential Materials)'란 이름으로 국립기록관리청이 그의 기록물들을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 이 전시는 워터게이트 재판기록에서부터 워터게이트 결과까지 각각의 관련인물들과 문서, 사건의 추이, 동영상자료 등을 통해 워터게이트 사건의 전모를 알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는 대통령의 공적이나 업적만을 내세우는 전시가 아니라 역사의 어두운 단면까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정부수립 이후 한국의 현대사는 어둡고 암울한 터널을 지나 오늘에 이른 만큼 대통령들의 과오도 많으나 이런 것들을 숨기며 덮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다음 세대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특별전시는 상설전시에서 다뤄지지 않는 범주의 기록물을 위주로 하며 대통령관련 기록물뿐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적 측면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흥미로운 소재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백악관 모형이나 대통령생가 등의 모형, 대통령과 가족이 사용한 소품, 대통령의 연애편지, 영부인의 의상 등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전시하고 있다.

후버 대통령기록관의 '오두막 출신과 성(城) 출신 : 대통령들의 집 (Of Cottages and Castles: Homes of Our Presidents)'은 조지 워싱턴에서부터 현 대통령인 조지 W. 부시까지 미국의 대통령들이 살았던 집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미국 대통령들은 매우 다양한 삶의 궤적을 걸어왔고, 부가 반드시 정치적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트루먼 대통령기록관은 '백악관의 아이 : 캐롤린 케네디의 인형들 (A Child in the White House : Caroline Kennedy's Dolls)'이란 제목으로 케네디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각국의 대통령이나 영부인 및 대사와 같은 손님들이 케네디 대통령의 딸 캐롤린 케네디에게 선물로 보내 준 인형들을 전시하였다.

또한 문화·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흥미로운 전시로는 후버 대통령기록관에서 2003년 4월 20일에서 11월 2일까지 전시하였던 '올드 맨 리버 : 미시시피 역사기행 (Old Man River : History Along the Mississippi River)'¹⁷⁾을 들 수 있다.

17) 이 전시는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http://hoover.archives.gov/exhibits/Mississippi/index.html>

18) 이 전시는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http://www.loc.gov/exhibits/churchill/interactive/index.html>

19) The Churchill Archives Centre Annual Report.

2006.http://www.chu.cam.ac.uk/archives/about/Annual_report_06_highlights.pdf

후버 대통령기록관이 위치하고 있는 아이오와 주를 비롯하여 미국의 31개 주와 캐나다의 2개 주에 걸쳐 흐르는 미시시피강은 오스카 해머스타인의 서정시 ‘올맨 리버 : Ol’Man River’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역사, 문화, 예술에 가장 많은 영감을 준 강이다. 「톰소여의 모험 Tom Sawyer」, 「허클베리 핀의 모험 Huckleberry Finn」등의 무대가 된 곳이 바로 이곳이며, 루이 암스트롱, 엘비스 프레슬리를 비롯한 수많은 음악가들이 활동하였고, 블루스와 재즈, 로큰롤 등 미국 음악의 고향이며,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이 전시는 이러한 미시시피 강을 배경으로 사진, 음반을 비롯한 다양한 소품과 기록을 가지고, 미시시피 주변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정보와 그 지역의 문화유산, 미시시피강에 얽힌 음악과 예술, 사람과 자연, 역사적 사건 등을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꾸민 복합 전시 프로그램으로 살아있는 문화체험장이자 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지역문화에 대한 일반적 이해의 수준을 높이고, 문화전반에 관한 관심의 범위를 넓히며, 인간과 자연,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라는 교육적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처칠기록관에서 기획하고 영국 의회도서관에서 전시한 ‘처칠과 미국(Churchill and the Great Republic)’¹⁸⁾의 온라인전시는 다양한 인터페이스 구성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미국 순회전시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현재 영국 의회도서관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전시되고 있다. 온라인전시는 처칠의 육성연설로 시작되며, 연대별 구성, 주제별 구성, 기록물의 유형별 구성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에 따라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이 전시는 기록물의 이미지와 더불어 상세한 전시해설을 볼 수 있고, 심지어 큐레이터의 해설 뿐 아니라 처칠과 관련자들의 음성을 스피커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 전시는 온라인전시의 인터페이스 구성이 실제 전시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구성이 가능하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전시나 이미지의 제공은 오늘날 기록관 프로그램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5~2006년 처칠기록관의 연례보고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컬렉션(2005년 62.34%, 2006년 38.38%)과 ‘이미지 전시(Image Gallery)’(2005년 11.93%, 2006년 20.61%)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⁹⁾ 따라서 처칠기록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전시나 컬렉션의 이미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 교육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이용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과 대통령기록관의 자료를 학생이나 일반인들의 지적성취를 위한 교육에 활용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은 정보공개 및 열람, 알권리, 정보제공과 같은 개념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됨으로써 일반이용자들의 기록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기록관을 이용하는 횟수도 늘어남에 따라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 이용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다. 각 대통령기록관은 이용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기록을 검색하고 찾을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관의 이용방법과 인용 등을 위한 자료의 이용방법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한다.

최근 들어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은 기록물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기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립기록관리청의 기록물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문과 함께 교안을 제공하며, 또한 거의 모든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조직구성에서 교육전문가를 배치하고, 각 대통령기록관은 홈페이지에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Education)’ 웹 페이지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처칠기록관 역시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교안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교안의 내용은 교사를 위한 자료 활용방법과 학생들을 위한 기록물

관련설명, 관련기록물과 연결, 기록물 분석을 위한 워크시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기록관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원본자료 분석에 대한 워크시트는 학생들이 자신이 파악한 원본자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분석·평가하여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기록물의 유형이 무엇인지, 생산날짜가 언제인지 등의 기초적인 분석에서부터 그 문서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평가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문서에 대한 해석능력을 기르고 문서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미국 대통령기록관이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은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2001년 10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기록관 내에 문을 연 ‘백악관 의사결정센터(The White House Decision Center)’로, 트루먼 대통령에게서 나온 역사적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학습과 역할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백악관 의사결정센터’는 백악관 웨스트 윙²⁰⁾의 재현을 통해 학생들과 성인들에게 일종의 혁신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중학생을 위한 ‘백악관 의사결정센터’는 5개의 모듈로 나누어져 있는 약 4시간의 교실활동과 트루먼 대통령기록관의 백악관 의사결정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약 5시간의 의사결정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인기 있는 시나리오에는 1948년에 일어난 베를린 봉쇄, 군대의 인종차별 철폐, 1950년 한국전쟁 등이다. 학생들은 여덟 그룹으로 나뉘어져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대변인 등과 같은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학생들은 각자 맡은 역할의 입장에서 트루먼이 직면한 지정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까지의 과정으로 학생들은 주어진 역할에 맞도록 사고하고 행동한다.

부시 대통령기록관의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How We Shall Govern)’, 아이젠하워 대통령기록관의 ‘오성지도자

(Five Star Leaders)’,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 되어보기 (Pretend You Are the President)’는 모두 이와 유사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책임과 정부의 행정시스템, 법, 리더십, 협동심, 의사소통, 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으며, 일련의 사안에 대해 깊이 있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설계되어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각 대통령기록관은 온라인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주로 퀴즈, 퍼즐, 게임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에 관한 전반적 지식과 대통령이나 역사 및 정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퀴즈나 단어 퍼즐 등을 통해 게임형식으로 제공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재미나 오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교육표준이나 그 주(州)의 교육표준에 맞도록 설계되어 해당 대통령의 삶과 유산에 대한 역사적 시각을 배우며,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또한 각 대통령기록관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앞서 교사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사들을 먼저 지도한다. 그리고 교안을 마련하여 수업에 필요한 자료와 그에 대한 지도방법 등을 제공한다.

20) “웨스트윙”은 백악관 비서실 간부들이 근무하는 곳을 일컫는 용어이다.

21) <http://bushlibrary.tamu.edu/education/programs/grade8/billofrightsamericanswithdisabilitiesact/ADA%20lesson.doc>

22) Maygene F. Daniels and Timothy Walch, 1984. 『A Modern Archives Reader : Basic Readings on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National Archives Trust Fund Board, p280.

부시 대통령기록관이 미국 역사 수업시간에 제공하는 ‘권리 장전 - 미국장애인복지법’에 대한 교안²¹⁾에는 기록관을 방문하기 전과 방문 및 관람 시, 그리고 교실에서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사후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교사들이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III. 한국의 대통령기록관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1. 전시 프로그램

1) 전시주제

전시는 기록물을 단순히 진열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유산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와 해석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되어야 한다. Joan Rabins(1980)는 기록관의 공공 프로그램 중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전시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전시 프로그램이 기록관의 특성을 잘 담아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만약 그런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기록관리 기관에 매우 유익하다²²⁾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는 현재 있는 기록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증이나 대여 등의 여러 가지 수집정책을 통해 보다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기획하고 구성해야 한다.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통합형 기록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전시관에는 역대 대통령별로 별도의 부스를 설치하거나 전시실을 따로 마련하여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시의 주제로는 대통령 재직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에 관한 전시,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관한 전시,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에 관한 전시, 대통령의 물품 전시, 대통령 생가나

청와대 등의 모형 전시, 문화일반에 관한 전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대통령 재직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에 관한 전시’에서는 각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의 기록을 통해 시대상을 보여줌으로써 그 시대의 역사를 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 전시실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전시가 빠질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된 각종 문서와 사진, 영상자료 및 피해자 증언록 등을 통해 사건의 발발배경과 전개과정, 관련인물, 결과를 사실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밖에 이승만 대통령 재임시의 한국전쟁이나 4·19 혁명과 관련한 전시,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의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전시,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의 서울 올림픽 관련 전시,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의 대구 지하철 참사,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의 국제통화금융(IMF) 사태, 2002년 월드컵 관련 전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관한 전시’는 대통령이 재임 시 추진했던 주요 정책 관련기록을 위주로 한다. 박정희 대통령 전시실에서는 새마을운동 또는 경제개발계획 등에 관련된 전시를 통해 1960~1970년대의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 전시실에서는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관계와 통일을 향한 행보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시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대통령의 업적이나 공적만이 전시의 대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적(功績)은 공적대로 과오(過誤)는 과오대로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끝난 전시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전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온라인전시는 일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전시들을 함께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관람할 수 있는 주제의 선택폭을 넓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전시기법

전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전시배치에서부터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종이기록물 위주의 나열적인 붙박이식 전시배치보다는 첨단기술과 소품 등을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전시물을 교체할 수 있는 독립부스식과 전시물의 구조를 단일화해 구조물을 재조합할 경우, 새로운 형태의 전시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²³⁾ 전시를 문서기록으로만 채울 경우, 지루하고 단조로울 수 있으므로 사진이나 행정박물, 대통령 관련소품, 3차원의 입체영상 등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소재를 개발해야 한다.

전시연출은 전시대상간의 관계, 주제와의 관계 등 상호관계를 효과적으로 전시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연출의 시각적 조형화 과정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으며, 전시시나리오에 따라 구성된 전시기록물이 관람객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인식될 수 있는 공간의 효과적인 연출이 필요하다.²⁴⁾ 따라서 상설전시의 고착성을 피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새로운 기록의 발굴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기존의 나열식 배치와 관람객의 수동식 감상이 지니는 한계를 벗어나 관람객과 전시자료 사이의 상호소통적인 전시기법을 개발함으로써 관람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호소통적인 전시기법은 관람객이 단순히 기록물을 감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역사와 삶, 문화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강화하게 됨으로써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적 효과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전시는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인터넷 가입자 수가 1200만 명을 넘는 오늘날 대통령기록관에서 온라인전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시는 직접 기록관의 전시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기록물의 정교한 이미지를 볼 수 있고, 또 상세하게 제공되는 설명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시청각 효과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향이나 동영상 등의 적절한 사용은 전시를 보다 흥미롭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대통령기록관을 직접 방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대통령기록관은 전 세계의 다양한 이용자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폭넓은 홍보효과 또한 거둘 수 있게 된다.

3) 전시안내

대통령기록관의 전시가 보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에게 전시에 관한 정보가 잘 제공되어야 한다. 전시정보는 일반적으로 팸플릿 등의 인쇄물을 통해 제공되기도 하고, 전시물 아래의 전시 해설판으로 제공되기도 하며, 큐레이터나 도슨트에 의한 해설을 통해 제공되기도 한다. 이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큐레이터나 도슨트에 의한 해설이라고 볼 수 있다.

도슨트(docent)는 '가르치다'라는 뜻의 라틴어 'docere'에서 유래한 용어로, 일정한 교육을 받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일반 관람객들을 안내하면서 전시물 및 작가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전시물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전시의 기획에서부터 전시 전반을 담당하는 큐레이터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카터 대통령기록관의 도슨트 업무 기술을 보면, 도슨트는 어린이나 어른, 가족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투어를 이끌고 워크숍을 비롯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지원자는 도슨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²⁵⁾ 도슨트를 우리나라 기록관에 도입할 때는 '기록해설가'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전시와 기록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를 위하여 '기록해설가'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처럼 대통령기록관은 이용자들이 전시에 관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 교육 프로그램

오늘날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넘치는 지식정보 속에서 교육은 무지에서 인지의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통해 참여자의 생각과 사유와 감성의 경험이 확장되고, 시공을 초월한 보다 넓고 깊은 체험이 되어야 한다. 빌헬름 폰 훔볼트(W. von, Humboldt)에 따르면, 인간은 인간의 삶과 학습에 있어서 스스로의 사고(思考)와 행위(行爲)를 통해 자기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상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교육학에서는 이런 대상을 교육내용, 교과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주입을 위해 갖추어진 지식이라기보다는 교육적 의미에서 인간의 성장을 도와주는 소재(素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²⁶⁾

오늘날 박물관을 비롯한 각종 문화기관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록관 또한 마찬가지이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대통령기록관은 이용자들이 경험을 통해 세계관을 확장하고, 지식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문화유산으로 기록보존이라는 일차적 기능은 물론이고, 사회·문화·교육 측면에서 대통령기록관이 담당해야 할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

1) 학교교육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이병준은 크리스토프 볼프(Ch. Wulf)의 이론²⁷⁾을 바탕으로 교육적 실천과 교육적 경험의 개념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교육이라고 불리는 제도 속에서의 학습 관점에서 탈피하여, 공연과 전시, 연출과 같은 비전형적인 실천 교육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지평이 탈영역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를 벗어나 삶의 공간 전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평생교육적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은 이러한 평생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일반 대중들의 다양한 학습요구와 문화의식을 반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우선 교육전문가(education specialists)를 확보하여 교육 표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은 주로 학생과 교사에 초점을 맞추고, 유아와 아동에서부터 중·고등학생을 비롯하여 제도적 교육 대상에서 벗어난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세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 개관 초기에는 어린이와 학생, 교사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23) 전태일. 2004. "박물관 프로그램 지원방안". 「공·사립 박물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1회 박물관정책세미나 제2주제 발표자료. pp90~91.
 - 24) 이차웅. 2006. 「IT 홍보전시관 전시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논문. p24.
 - 25) <http://www.jimmycarterlibrary.gov/museum/job%20description.pdf>
 - 26) 이병준. 2006. "예술교육에 대한 교육학적 성찰". 「미술교육논총」제20권, 제2호. 한국미술교육학회. p14.
 - 27) 크리스토프 볼프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미디어, 예술, 문화연구의 성과를 통하여 새로운 인간학(Neue Anthropologie)을 제시하였다. 그는 신체적, 문화적 학습과정으로서의 미메시스(Mimesis) 연구, 교육적 의미로서의 이행성(Performativita.t)의 이론 및 실천연구, 의례적 행위(Rituale)의 학습, 그리고 그림(Bild: 像)과 상상력(Imagination)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문화학습에 대한 연구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가족과 학교, 어린이/청소년/성인문화 미디어, 조직문화, 도시와 공간속에서의 미메시스적, 이행적, 의례행위적 과정에 주목한다. <이병준. 위의 글. pp15~16.>

학교수업과 대통령기록관 방문을 연계하여 기록관을 방문하기 전 미리 수업에서 학습한 뒤, 기록관에서 원본문서를 보고 토론한 뒤, 이에 대한 경험을 글로 쓰는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의 대통령기록관 설립 시 시도해 볼 만한 프로그램이다. 수업에서 기록물을 활용하기 쉽도록 대통령기록관의 아키비스트와 교육전문가는 학년별 교육 단계에 맞는 기록물을 선정하여 이를 교육용 편찬자료로 제작하여 신청자에게 오프라인으로 배부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기록관은 학년에 따라 각기 다른 교안을 제공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교사들을 위한 교사워크숍을 개최하여 프로그램의 효용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2) 참여형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교육 프로그램은 새로운 경험과 정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이 결합되어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요한 호이징가(J. Huizinga)가 저서 「호모루덴스(Homo Ludens)」에서 정의했던 ‘놀이와 지식’이란 개념으로, 요즘에는 흔히 에듀테인먼트로 말하고 있다. 에듀테인먼트는 놀이적 속성을 담고 있는 게임과 교육의 개념을 합쳐서 만든 합성어로 교육(Education)의 ‘에듀(Edu)’와 오락(Entertainment)의 ‘테인먼트(tainment)’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다. 광의의 에듀테인먼트는 참여자가 놀이형식을 즐기는 과정에서 스스로 교육의 기대치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협의의 에듀테인먼트는 놀이 형식의 다양화와 동기 유발 구조의 강화를 통해 교육적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적 문화요소와 정보통신적 기술요소를 결합하여 만든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²⁸⁾

체험 프로그램은 역사적 지식과 정보 뿐 아니라 사회성을 기르고 리더십을 비롯한 인격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에서의 프로그램이 단순히 기록관의 내부를 견학하는 수준이 아니라, 교육적 지표를 가지고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때 대통령기록관의 프로그램은 일반 기록관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대통령기록관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대통령의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중요한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해 보는 등의 프로그램은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기록물을 토대로 상황을 재현하여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거나 6·29선언을 통해 이루어진 한국 정치의 민주화과정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턴십 제도와 자원봉사자 제도 등은 기록관의 운영에 도움이 되며, 참여자 개개인에게는 전문지식의 습득과 자아성취감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인턴십 제도는 미래의 아키비스트들에게 기록관 업무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턴십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습하고 그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아키비스트의 자질을 연마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의 자원봉사자는 봉사자에게도 독특하고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기록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대통령기록관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대통령기록관마다 정의하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기록관을 안내하고,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나 교육 등 프로그램을 안내하며, 대통령기록관의 행정업무를 돕고, 기록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인턴십 제도나 자원봉사자 제도를 통해 기록관

28) 김영순, 백승국. 2006.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프로세스의 기초학적 전략”. 『정보과학회지』제24권, 제2호. 한국정보과학회. p15.

은 보다 원활한 업무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로 하여금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삼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⁴¹⁾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IV. 맺음말

기록을 남기지 않던 과거의 부실한 국가기록 관리와 대통령 기록물 관리현실에 대해 현 참여정부는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해 기록관리를 정부혁신 과제로 삼아 청와대에서부터 제대로 된 기록관리를 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기록관이 기록물의 무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 중심의 보존관리가 아닌 이용자 중심의 활용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기록관은 그 속에 소장된 다양한 기록물들을 활용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적 욕구 충족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전시·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기록관의 필수기능으로 인식되고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록물 속에 포함된 다양한 지식정보를 중심으로 역사, 사회, 문화교육이 전시를 비롯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한국에서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되어 운영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앞으로는 기록관이 보존을 넘어 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보존과 관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지만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무엇이건 간에, 기록물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적(功績)은 공적대로, 과오(過誤)는 과오대로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후세들이 지침을